

경찰소식

순경 공채 경쟁률..男 26대1 女 27대1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 공채에 지원자가 쇄도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1차 순경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819명을 선발하는 남자 순경직은 2만1천297명이 응시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여자 순경은 227명 선발에 6천174명이 응시, 27.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8.4대 1과 12.5대 1의 경쟁률을, 경찰특공대 특채는 전술

과 폭발물 부문에서 각각 55.4대 1과 1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경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해보다 채용을 크게 늘린 여자순경 공채를 제외하고 남자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및 경찰특공대 특채는 지난해보다 응시 경쟁률이 더욱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경기가 불황으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찰 공채에 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무수행 관련 피소경찰관에 법률지원

경찰청은 직무 집행과 관련해 피소된 경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 법무과 소속 소송전담요원 3명이 지방경찰청을 순회 방문하면서 지역내 경찰 피소 현황을 파악하고 피소된 경찰

관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법고시 특채자 3명을 소송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지금껏 소송관련 기록 검토, 답변서 작성, 법률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펴왔다.

용의자 정보' 윈스톱 제공

경찰청은 갈수록 지능화·홍포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 제공과 전문가 양성을 맡을 범죄정보지원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범죄정보지원계에서는 강력사건 용의자의 주소지나 지문, 차량 등의 신상정보는 물론 전과기록이나 범죄수법, 수배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원콜(One-Call)수사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일선 경찰들이 용의자

정보를 신속하게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강력범죄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범죄정보지원계는 또 '프로파일링(Profiling)' 전문가 양성과 미제 강력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행현장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성격, 행동 패턴, 직업, 거주지 등 범인과 관련된 특징요소를 추출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서울 관악서, 음성인식 전화 신설

서울 관악서가 최근 대민 치안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음성 인식전화화를 개설했다.

이번에 관악서가 개설했음성인식 전화는 1688-1126번으로 경찰서 직원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번호를 누르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부서를 말하면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다른 경찰서, 구청, 소방서 등 타 기관과도 음성인식 등록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특히 1688-1126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전국 공통으로 지역번호 없이 단일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물론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긴요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악서 김영호 정보통신계장은 『이번에 도입된 음성인식 전화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됨은 물론 통화효율 향상으로 민원인을 위한 한차원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면서 『앞으로 그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특별 단속

경찰청은 최근 영아납치와 살인 등 심부름 센터의 범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14일부터 2주간 심부름센터나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해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불륜장가를 포착해 협박하거나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주택가에 나붙은 불법광고물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심부름센터 주변 잠복과 출입자 동향 파악, 의뢰인 내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치안망 ‘7개 권역’으로 재편 맞춤형 치안서비스 적극 추진

서울경찰청(청장 이기복)은 지난 달 22일 청사 대강당에서 산하 경찰서 중간관리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실천 다짐대회'를 열어 기존 경찰서 4~5개를 1개 권역으로 묶어 범죄에 대처하고 치안활동에 나서는 '권역별 치안체제'를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 창설 60년만에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시민들의 생활권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재편, 범죄에 대응하는 권역별 치안망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치안망은 종로권(중부·종로·남대문·동대문·청량리), 영등포권(영등포·노량진·강서·양천), 동부권(용산·성동·동부·중랑), 남부권(남부·관악·구로·방배), 서부권(서대문·마포·서부·은평),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수서), 북부권(성북·북부·종암·노원·도봉) 등 7개 권역으로 재편된다.

새 치안 체제가 시행되면 경찰은 연쇄살인이나 방화, 강·절도 등 주요사건 발생시, 혹은 해당 지역에서 만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발생시 등 권역 내 치안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회의를 열고 신속 대



처하게 된다.

또 성매매와 음주단속, 검문검색 등 권역별 특성에 따른 치안활동에 대한 회의를 열고, 권역별로 치안상황 추세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대신 서울 전역에서 실시되는 일제 단속이나 검문검색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같은 권역 운영을 위해 3개월 단위로 각 권역 내 경찰서장에게 번갈아 권역팀장을 맡기고, 서울경찰청 각 부장을 '치안협력 조정관'으로 임명, 1개 권역씩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女警 채용·승진 확대

‘경찰서내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



최근 여경 워크숍에 참석한 여경 간부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여성 경찰관의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경 채용과 승진을 확대하고 경찰서내 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전국의 경위 이상 간부 여경 3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여경간부 워크숍에서 이처럼 밝히고 구체적인 여경 채용·승진 확대방안과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경찰은 현재 전체 경찰의 4%인 여경 비율을 2014년 10%까지 높이기 위해 매년 600여명의 여경을 채용하고 전문인력 특채시 일정비율 이상 여경을 선발하는 '여경 채용목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승진 소요연수를 채워 총경 및 경정 승진대상이 되는 여경의 30%, 경감 승진대상이 되는 여경의 10%를 승진시켜 여경의 간부 진출을 확대하는 '여경 승진목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등 주요 경찰관서에는 24시간 타かが 가능한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여성전용 체력단련장 등 여경 복지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이날 경찰청 미아찾기 센터에 근무하며 16명의 미아를 부모 품에 돌려 보낸 김수진 경사와 관악산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명 '관악산 다람쥐'를 검거한 남부서 강력팀 이희정 순경을 1계급 특진시켰다.

외국인 범죄 다룰 경찰인력 확충해야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지난 1년 동안 50%가까이 늘어 9천103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30건 가량 발생했으나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중에서 사기나 문서 위조 등의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범죄 중 절도살인·강도 등 주요범죄 증가율은 전년보다 6.3%, 사기 등 범죄 증가율은

13.2%였다. 이와 비교하면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국내 전체 범죄 증가율의 8배나 되니 엄청난 증가세다. 외국인 범죄의 급증 요인은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밀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이후 13만8천명이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에 5만여명이 늘어 18만8천명 수준에 달한 것과 유관하다

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찰도 말 할 나위 없다. 외국인 범죄 증가에 걸맞는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다국적인 사회로 변모한 데 따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경찰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孝子 의경’, 아버지께 肝 이식

—— 인천 계양署 모철성 상경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떼준 한 의경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모철성(23세) 상경. 모 상경의 아버지 종성(47세)씨는 2001년 간에 이상 증세를 발견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지난해 11월 증세가 간암 중기로 악화되면서 '간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경 복무 중이던 모 상경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수술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부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신분상 인천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

주변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운 일인기 하지만 모 상경의 수술을 만류했다고 한다.

모 상경이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유망주였고 제대 후에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갖고 있던 터여서 간 이식수술 후에 다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3년 전 결혼, 슬하에 아들과 쌍둥이 딸 등 3남매를 두고 있는 모 상경이 어려운 생

활 속에서도 부모님까지 모시고 생활해 왔던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서의 건강도 배려해줘야 했다.

모 상경은 그러나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라며 수술 허가를 얻었고 조직검사와 세포면역검사 등 50여가지의 정밀검사 끝에 적합자로 판명돼 지난달 1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았다.

자기 간의 60%를 아버지에게 이식해 주는 대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나나 모상경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병실을 옮겨 회복 중이다.

계양경찰서 경찰관들도 모 상경의 효심에 감동해 200여만원의 성금과 인천경찰청장의 금일봉을 모아 모 상경에게 전달했지만 전체 수술비 4천여만원에는 여전히 턱 없이 모자란 상태.

모 상경은 전셋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수술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모 상경은 "냥이시고 길러 주신 아버지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며 "아버지께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빨리 되찾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화제의 인물

“그 놈..아직 거기 살아요?”

—— 충남 서천署 故 장영현 경사

“그 놈..아직.. 거기 살아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해 강마른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눈 한치위마저 노랗게 변한 장영현(42세)경사는 마지막까지도 범인에 대한 집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0년 전 충남 서천읍내 주점 ‘은비정’에서 발생한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 경사는 지난달 13일 오후 급성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천경찰서 형사계 감식담당인 장 경사는 지난해 초 문서고에서 '1994년 미제사건 파일'을 찾아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지문을 재감정, 사건 당시 주된 등록증이 없어 밝혀지지 않았던 피의자 김 모(30세)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체를 풀어줬다.

김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가슴을 치던 장 경사는 곧 몸

에 이상을 느껴 서울 경찰병원을 찾았고 1월 초 “급성간암 말기라 한 달 이상 살기 힘들다”는 청진벽력같은 진단을 받았다.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 경사는 황달증세가 심하고 복수가 차올라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어 했지만 떠들떠들 피의자 검지의 근황을 물으며 사건에 대한 집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내가..기적을..만들어 볼께요”라며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투지를 보였지만 13일 오후 1시 유언 한 마디 없이 눈을 감았다.

서천 장항 성누가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그의 아내(40세)는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일만 해오던 사람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느냐”며 “목숨같이 사랑한 두딸(15, 10)을 이제는 혼자 키워야 한다”며 오열했다.

퇴직을 앞둔 경찰동지에게 알려 드립니다

■ 회원등록

- 회원등록은 거주지 관할 경유회(대부분 경찰서 청사내 위치)또는 본인이 원하는 관할 지역회에 회원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당시 근무관서장 발행)과 명함판 사진 1매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회비는 년간 12,000원이며 2년분 회비를 납부하면 2년간 유효한 회원증을 발급함
- 다만 평생회원증은 회비가 200,000원임, 신청용지는 시도회·지역회에 비치되어 있음

■ 경우신문 구독

- 구독신청은 경유회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 등에 전화로 구독 신청을 하면 자택(직장)으로 우송해 드리며, 구독료는 년 1회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지로용지(송금자 성명 명기)에 의거 구독료를 납부하면 됨

- 구독료 : 연간구독료 - 1만원
평생구독료 - 10만원(80세 이상은 무료, 70세 이상 80세 이하는 5만원, 65세 이상 70세 이하는 7만원, 65세이하 10만원)

※ 입금계좌 (우체국 : 012468-0151196 대한민국제향경우회)

※ 문의전화 : 02-2234-1881

■ 무궁화회(골프모임)가입— 10년 이상 재직하고 회원등록 필한 자에 한함

- 무궁화회 등록신청서를 경력증명서 1통(퇴직 당시 근무 관서장 발행)첨부 경유회 중앙회에 입회비(500,000원), 년회비(200,000원)와 함께 제출하면 경유회가 주주로 되어 공동경영하는 기흥골프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소재 36홀 규모)의 회원자격으로 월1회(매월 세번째 월요일 06:00~07:00)이용할 수 있음
- 입회비 입금 계좌번호 : 제일은행 276-20-108132 현성일
- ※ 입회비 납부시는 납부사실을 경유회 중앙회 사업부장에 연락바람
- 등록신청서 용지는 경유회 중앙회(사업부)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화가입 신청하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신청용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시는 명함판 1매,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유회원증 사본 1부 첨부
- 부킹은 매월 1일 ~3일까지 09:00부터 경유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킹메뉴를 클릭 신청(문의전화 : 02)2234-1881)

■ 경우산악회 가입

- 입회비 30,000원(연회비 30,000원)을 경우산악회 총무(경유회 홍보과장)에게 계좌납부(제일은행 276-20-174047 안오모)하거나 산악등산일에 현장에서 직접 납부하면 됨
- 계좌납부시는 전화로 총무에게 연락바람(문의전화 : 02)2234-1881)
- 산행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행 예정지 등은 사전에 통지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